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도 되고 영생도 돼

하나님 마음이 조금씩 자라서 완성이 되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선악과

죽는 사람은 죽기 위해서 세상을 산다가 되는 것이요, 영생을 하는 사람은 영생을 위해서 산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오늘날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무궁토록 사는 비결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으로서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영생이 없고 사람으로서 영생을 누릴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되지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나기만하면 죽지 않고 영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죽지 않는 것이지 승리제단 나온다고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의 탈을 하나하나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생을 이루고 자신이 바로 영생체로 이루어진 다음 못 생명에게 영생을 주려면 바로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승리제단 식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오늘날 나라의 주체의식이 바로 죄요, 나라의 주체의식이 바로 사람을 죽게 하는 선악과요, 나라의 주체의식이 바로 마귀라는 것을 수 천 번, 수 만 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사는 방법으로 세상을 산다면 그 사람은 바로 죽기 위해서 산다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싸움이 있어야

그래서 자존심을 버리기 위하여, 나를 버리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시간,

시간이 나를 짓이기고 나를 죽여야만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것을 죽이지 아니하고 자존심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꼭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사람은 반대 생활을 수십 년간 했던 것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미워하고 욕을 하면 도리어 그 사람을 사랑하고 도리어 그 사람을 좋아하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상대방이 미워하면 우발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주체의식이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노여워하는 마음을 일으키려고 할 때에 도리어 좋아하고, 도리어 사랑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러분들, 성경이나 불경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는 불심을 품어라." 그 말이 뭐냐면 바로 마귀의 마음인 내 마음을 품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마음의 싸움이 없는 자는 승리제단 나와 봐야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그래서 그 마음의 싸움에서 이기고 마음의 싸움에서 나를 이기고 나를 짓이기는 생활을 하려면 바로 하나님이 주는 마음만 품고 하나님이 일으키는 마음만 품어야 나라의 것이 없어지고 나라의 의식이 제거되면서 성령으



구세주 조희성님

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단번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이 자라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하나님의 영이 자라지 않고서는 나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이겨야만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고 나를 이겨야만 바로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고로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 하는 말은 뭐냐면 "나라는 주체의식이 하나님이 되어라," 하는 말씀인 고로 나라의 주체의식이 하나님이 되려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는 노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제단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했냐? 하는 것을 각자가 반성을 하고 하나님의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반성을 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긴자가 되기까지는 거쳐 이긴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 어떻게 구원론을 알며, 어떻게 구세주론을 알며, 어떻게 이슬을 내리며,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는 비결의 학설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죄가 피 속에 있으며 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마귀보다 약한 고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하나님의 영을 강하게 하려면 시간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시간, 시간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한번, 두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만 번, 수 백 만 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자라게 되고 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강해져서 지배를 하던 마귀의 영을 여지없이 죽여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영이 될 때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지 성교회에서 말하는 식으로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영생이 이루어져

그런고로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를 법을 지킴으로 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점점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영이 무럭무럭 자랄 때에 그 때에 이슬성신이 받아지는 것입니다. 마치 자라는 곡식에 거름을 주는 것처럼 무럭무럭 더 크게 자라고 더 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 사람 속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영생이 이루어지는 고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애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하는 하나님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온 세상 인류를 살리는 역사인 고로 참으로 굉장한 큰일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승리제단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하게 큰일을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영생의 하나님으로 이루어진다면 온 세상 인류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이 나이가 많은 늙은이도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이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건, 하나님이 된다는 건 아주 쉬운 일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992년 4월 21일 말씀 중에서
원현옥 기자 정리

[연재] 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사 피의 위력

과거, 인류의 의식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은 때가 있었다면, 오늘날의 의식수준은 아마 혈기왕성한 청년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 더더욱 인간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한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 양명학의 대가 왕양명은 "인간은 모두 양지(良知)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모두가 이미 성인(완성자)이라는 사상"을 펼쳤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나는 뇌의 15%도 쓰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인슈타인이 대략 10%만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일반인은 보통 3~4%정도, 많으면 6~7%정도 쓴다고 추측한다.

인간은 뇌를 사용함으로써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이것은 인간이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그 능력은 계속 증가한다는 말이다.

아인슈타인도 기억력이라든가 수학적 사고능력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일화로 수학성적이 한 때 좋아 독일의 고등학교 김나지움에 입학했지만, 끝내 자퇴하였다. 이후 수학은 잘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능력은 부족했지만 이해력이 매우

높아 독일의 수학자 슈트라우스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완성한 것이 "통일장 이론"이다.

인간 능력 물질 문명에 과도한 사용으로 많은 문제 발생

인간은 인류의 편익과 욕망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물질에너지를 개발해 왔다. 풍력과 수력 등 자연력에서부터 석탄 석유 등 화석에너지를 거쳐 현대에는 원자력과 태양력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인류는 물질에너지를 부단히 개발하고 물질 환경을 원하는 대로 풀어 고침으로 말미암아 '지상천국'이라도 건설할 기세로 달려왔던 것이다.

그러나 세계는 지금 기대와 달리 인류의 물질문명의 개발로 인해 멈출 수 없는 기차의 폭주와도 같이 위험천만한 질벽으로 향하고 있고, 핵폭탄의 시계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시점을 가리키고 있다.

인간의 능력을 물질 환경에 과도하게 이용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첫째, 인류가 쓸 수 있는 자원은 불과 몇십 년밖에 쓰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영화 <영력>에서 영력으로 물체를 구부리는 초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주인공(류승룡)

둘째, 쓴 것이 버려지니 자연환경을 파괴한다. 폐기물들은 산더미처럼 쌓이고 공해 수해로 인해 자연의 생명은 썩어간다.

셋째, 물질은 개발하는 과정 그리고 개발한 것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채광 중의 사고, 핵반응로의 방사능 유출에 의한 질병 유전자 돌연변이 발생 등은 물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이다.

넷째, 물질만능 풍조에 의한 인간성의 상실은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물질과 황금만능에 가치판단 기준을 둔

으로써 인간성은 타락 비인간화되었고, 물질의 환각적 안락 때문에 신체의 생물학적 적응력은 퇴화하기에 이르렀다.

물질만능 사회와 과학 기술의 발전을 제일로 생각하는 인간의 현실은 '혹을 때려다 혹은 하나 더 붙이는 격' 밖에 안 된다. 점점 더 사회를 비인간적인 기계화 물질화로 가속화할 뿐이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만을 꾀하는 현실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위험한 맹종이다.

승리제단의 비전이 인류의 비전

승리제단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인류에게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지구상의 총체적 문제를 바로 인간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인간 속에 진정한 문제 해결의 키가 있는데, 자꾸 외적인 발전과 확장을 꾀하는 데서 문제를 찾는 행위는 점점 더 심각해 간다고 진단한다.

인간 속에는 실로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그런데 그 잠재력이 물질적인, 육체적인 속박으로 말미암아 제한적인 능력에 그치고 있다. 만약 물질을 에너지화하는 원자력과 같이 육체를 정신의 에너지로 발전시킨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초능력이 나올 것이다. 즉, 인간의 의식 차원을 정형에서 기형, 기형에서 신형의 단계로 끌어올리면, 여기서 엄청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신형(神形)의 고양된 정신력으로부터 발현되는 것이 바로 초능력이다. 자신 속의 잠재력을 폭발시킨 사람은 실로 무서운 초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나 배를 타는 대신에 축지법(縮地法)을 써서 몸이 공중에

뜬 채 걸어 다니거나 물 위를 걷는다. 전화나 무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텔레파시로써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감지한다. 투시(透視)로써 원거리를 볼 수 있고, 예지(預知)로써 미래를 읽는다. 첨단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조종하고, 염력(念力)으로 물건을 움직이고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한다.

상상만 해도 몸이 붕붕 뜨고 기분이 좋아진다. 이제는 외부의 물질세계의 발전을 도모하기보다 자신 내면의 잠재력과 능력을 개발하는 편이 훨씬 더 밝은 내일을 약속할 것이다. 인간 속의 잠재력의 개발은 인간의 자율적인 에너지의 개발과 같이 부작용이나 부수적인 복잡한 문제가 수반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 개발을 통하여서만이 진정한 인간의 목적인 인간완성의 길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 인류의 최고 정점에는 바로 인간완성이 그 목표다. 인간완성이 될 때야 비로소, 인류가 간절히 바라던 진정한 자유와 평화,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주호 기자